

있었어 겨울이 가고 또 나를 찾지 말고 떠나가 (제발 가지마) 왜 몰랐을까 아직 너무 늦
 나는) 괜찮아 (아프잖아) 내 목에 줄 세개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 옛 생각이 나 아직 너
 다 그리워지면 돌아와 줘요 그때 또 하루가 지나도 갈수록 커져만 가 (가지마) 행복
 사람들은 왔다 간다 태어나서 널 느낄 수 있잖니 (싫어 싫어)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
 숨는 거야 님이란 글자에 점하나 비겁하지만 내가 살아온 그대에 느낀 색깔 두고두
 남은건 초록이겠지 내 마음 눈을 감아도 널 울릴게 잘 지내 줘, 나 너의 결인 걸 그랬
 길 그리워지면 돌아와 줘요 그때 또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(나를 잊으면 안돼) 나
 다시 열린 서랍 속에 맘이 멍들었죠 파란 슬픔에 길들여져 뜬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포
 들은 왔다 간다 태어나서 널 사랑했더라면 스치는 바람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눈을 감
 꺼내 들어 부서진 시간 위에서 난 두려워 시간이 지나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
 말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세상을 뒤집어 찾으려 해 오직 너로 완결된 이야
 그리저러 참아볼 만해 넌 아무 일도 많아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이 노래를 불러요 파
 실망하지는 마 나의 의식 없이 밀려와 이 꽃 길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길 잃은 맘
 물에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밤을건지 그리운 일을적지 좋아서 걷는거고 불안해서
 오늘도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말도 위로 풀었지 빈틈
 했지 뜨겁던
 난해 넌 나 흘
 따라와 싫다
 잠든 너를 찾
 (그래 나는) 괜

KOREAN LYRICS IN MARKOV STYLE

는 거짓말이라도 날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번 말했잖아 너
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나 우리 다시 조용히 잠든 너를 찾아가 너도 나만큼은 아
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길들여져 뜬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문신
 이 가득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엄마는 남이었지 불러본 적도없이 편안할 맘이없어
 하늘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번 말했잖아 너 아니라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전쟁
 년 내 하루는 온통 네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닌 니가 필요해 돌아와 줘요 그때 또 한
 이만 그녀가 떠나가요 나는 (그래 나는) 괜찮아 (아프잖아) 내 마음 너는 떠올라 길 잃
 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.하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.하
 해 오직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그곳에 열여 붙은 너와나 내 하루는 온통 네
 려오네요 이제 니가 날 일깨워주는 은인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돌아서
 빈틈도 없이 밀려와 이 노래를 불러요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이별로 취해야지 자
 다도 난 왜 자꾸 이러니 왜 몰랐을까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조금 쉽게 갈 수
 럼 사라진 내 맘에 없는 그림 내 눈을 감아도 널 위해 기도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
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(나를 잊지마)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있네요 멀어지는 그 지
 그림자가 떠오르고 서랍 속에 살았기를 오늘도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멈춘 시간
 로 지금 나 이제 니가 싫어 그러니 제발 가지마) 왜 몰랐을까 아직 너무 많아 이 또한
 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 잎 따다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 길을 걷다 너
 잤아) 내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니가 자꾸 날 사랑해줘요 이 또한
 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(그래 나는) 괜찮아 (아프잖아) 내 맘 속에 살았기를 오늘
 힘들잖니 내가 내가 살아온 그대에 느낀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넌 또 만
 은 실망하지는 마 나 니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도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하
 웃은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일깨워주는 은인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죠 수백
 기도잖아 한숨만 땅이 꺼지라 쉬죠, 오, 오 내 눈을 뜨면 남은건 초록이겠지 내 맘을
 려보낸 사랑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아 행복은 다 그대로인 걸 잃어도 난 그대를 찾아
 사랑의 말로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이별을 말하고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
 럼 사계 아직도 그댄 내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정말 싫어 졌어 우
 일도 없던 것처럼 날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남자

여전히 내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
요 이제 니가 싫어 니가 정말 싫어 잘 지내 줘,
나 아직 너무 보고 싶다고 불러 봐도 넌 늘 저
달빛아래에 나 하루가 지나도 갈수록 커져만
가 (가지마) 행복해 (떠나지마) 나를 잊고 살아
가줘 (나를 잊지마) 나는 (그래 나는) 괜찮아
(아프잖아) 내 맘을 내 목에 줄

이별이 지나봐요 그댈 잊어야 하지만 내가 살아온 그대에 느낀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밀려와 이 세상 하나뿐인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빛이 다 혼잣말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꽃 길을 걷다 너와 같이 할 수 없어 애태우고 나 보란 듯이 넌 늘, 그래, 그렇게 웃어 줘

있잖아 겨울이 가고 또 나를 찾지 말고 떠나가 (제발 가지마) 왜 몰랐을까 아직 너무 늦
 나는) 괜찮아 (아프잖아) 내 목에 줄 세개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 옛 생각이 나 아직 너
 다 그리워지면 돌아와 줘요 그때 또 하루가 지나도 갈수록 커져만 가 (가지마) 행복
 사람들은 왔다 간다 태어나서 널 느낄 수 있잖니 (싫어 싫어)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
 가슴는 거야 님이란 글자에 점하나 비겁하지만 내가 살아온 그때에 느낀 색깔 두고두
 남은건 초록이겠지 내 마음 눈을 감아도 널 울릴게 잘 지내 줘, 나 너의 결인 걸 그랬
 길 그리워지면 돌아와 줘요 그때 또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(나를 잊으면 안돼) 나
 다시 열린 서랍 속에 맘이 멍들었죠 파란 슬픔에 길들여져 뜬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포
 들은 왔다 간다 태어나서 널 사랑했더라면 스치는 바람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눈을 감
 꺼내 들어 부서진 시간 위에서 난 두려워 시간이 지나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
 말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나 우리 다시 조용히 잠든 너를 찾아가 너도 나만큼은 아
 이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길들여져 뜬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문신
 이 가득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엄마는 남이었지 불러본 적도없이 편안할 맘이없어
 하늘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번 말했잖아 너 아니라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전쟁
 년 내 하루는 온통 네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닌 니가 필요해 돌아와 줘요 그때 또 한
 이만 그녀가 떠나가요 나는 (그래 나는) 괜찮아 (아프잖아) 내 마음 너는 떠올라 길 잃
 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-하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-하
 해 오직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그곳에 열여 붙은 너와나 내 하루는 온통 네
 려오네요 이제 니가 날 일깨워주는 은인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돌아서
 이 빈틈도 없이 밀려와 이 노래를 불러요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이별로 취해야지 자
 라도 난 왜 자꾸 이러니 왜 몰랐을까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조금 쉽게 갈 수는
 럼 사라진 내 맘에 없는 그림 내 눈을 감아도 널 위해 기도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
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(나를 잊지마)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있네요 멀어지는 그 지
 그림자가 떠오르고 서랍 속에 살았기를 오늘도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멈춘 시간
 로 지금 나 이제 니가 싫어 그러니 제발 가지마) 왜 몰랐을까 아직 너무 많아 이 또한
 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 잎 따다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 길을 걷다 너
 잤아) 내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니가 자꾸 날 사랑해줘요 이 또한
 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(그래 나는) 괜찮아 (아프잖아) 내 맘 속에 살았기를 오늘
 힘들잖니 내가 내가 살아온 그때에 느낀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넌 또 만
 은 실망하지는 마 나 니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도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하
 웃은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일깨워주는 은인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죠 수백
 지도 않아 한숨만 땅이 꺼지라 쉬죠, 오, 오 내 눈을 뜨면 남은건 초록이겠지 내 맘을
 려보낸 사랑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아 행복은 다 그대로인 걸 잃어도 난 그대를 찾아 하
 사랑의 말로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이별을 말하고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
 럼 사계 아직도 그댄 내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정말 싫어 젖어 우
 일도 없던 것처럼 날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남자

MARKOV STARTING WITH WORDS THAT STARTS WITH "이" + "..."

그럭저럭 참아
 실망하지는
 물에 파란 빨
 오늘도 난 너
 했지 뜨겁던 스물일곱 여름은 빨강이었지 내 사랑 괴롭지도 외롭지도 않아 한숨만
 간해 넌 나 홀로 회상하고 헤어짐이란 슬픔의 무게를 난 그대로 가던 길 그곳에 너로
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번 말했잖아 너 아니라면 그럴 일은
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결인 걸 그랬어 오늘같이 가녀린 비가 내
 래 나는) 괜찮아 (아프잖아) 내 가슴속에 먼지만 쌓이죠, 오, 오 내 목에 줄 세개 내가
 는 거짓말이라도 날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번 말했잖아 너
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나 우리 다시 조용히 잠든 너를 찾아가 너도 나만큼은 아
 이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길들여져 뜬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문신
 이 가득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엄마는 남이었지 불러본 적도없이 편안할 맘이없어
 하늘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번 말했잖아 너 아니라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전쟁
 년 내 하루는 온통 네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닌 니가 필요해 돌아와 줘요 그때 또 한
 이만 그녀가 떠나가요 나는 (그래 나는) 괜찮아 (아프잖아) 내 마음 너는 떠올라 길 잃
 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-하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-하
 해 오직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그곳에 열여 붙은 너와나 내 하루는 온통 네
 려오네요 이제 니가 날 일깨워주는 은인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돌아서
 이 빈틈도 없이 밀려와 이 노래를 불러요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이별로 취해야지 자
 라도 난 왜 자꾸 이러니 왜 몰랐을까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조금 쉽게 갈 수는
 럼 사라진 내 맘에 없는 그림 내 눈을 감아도 널 위해 기도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
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(나를 잊지마)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있네요 멀어지는 그 지
 그림자가 떠오르고 서랍 속에 살았기를 오늘도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멈춘 시간
 로 지금 나 이제 니가 싫어 그러니 제발 가지마) 왜 몰랐을까 아직 너무 많아 이 또한
 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 잎 따다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 길을 걷다 너
 잤아) 내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니가 자꾸 날 사랑해줘요 이 또한
 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(그래 나는) 괜찮아 (아프잖아) 내 맘 속에 살았기를 오늘
 힘들잖니 내가 내가 살아온 그때에 느낀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넌 또 만
 은 실망하지는 마 나 니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도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하
 웃은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일깨워주는 은인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죠 수백
 지도 않아 한숨만 땅이 꺼지라 쉬죠, 오, 오 내 눈을 뜨면 남은건 초록이겠지 내 맘을
 려보낸 사랑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아 행복은 다 그대로인 걸 잃어도 난 그대를 찾아 하
 사랑의 말로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이별을 말하고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
 럼 사계 아직도 그댄 내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정말 싫어 젖어 우
 일도 없던 것처럼 날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남자

이만...감아도 널 떠나 보내기가 힘들잖니 내가
결국 너의 결인 걸 수조차 없어 널 가둔 채 살아
그만 그만 멈춘 시간 위에서 난 그대를 찾아 왜
몰랐을까 아직 너무 보고 싶다고 불러 봐도 이
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날 일깨워
주는 은인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가 살아온
그때에 느낀 색깔 두고두고

이러면...365 이 꽃 길 그리워지면 돌아와 줘요
그때 또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(나를 잊지
마)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있네요 멀어지는
그 자리 그곳에서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말처
럼 되질 않잖아 보다 조금만 널 사랑했더라면
스치는 바람처럼 흔들리는 내 걱정은 하지 않
으면 니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저리가 난 니
가 자꾸 이러면

이상에...말로 그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가득
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이별로 취해야지 저
별로 날아가지 하루를 별일없이 사는건 바보같
았지 낮에는 노랗했지 밤에는 주정했지 뜨겁던
스물일곱 여름은 빨강이었지 내 목에 줄 세개
내가 살아온 그대에 느낀 색깔 두고두고 담아
왔던 생각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란
눈물에 파란 슬픔에 길들여져 뜬구름에 날려보
낸

이...추억에 묻어 두길 바래, 널 사랑했더라면
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테니까 이 꽃길
따라 잠시 쉬어가다가 그 자리 그곳에서 날 힘
들게 하니 니가 날 기다려요 꽃길 위에서 선명
히 너는 떠올라 길 그리워지면 돌아와 줘요 그
때 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너도 다른 맘 연
기처럼 사라진 내 맘을 내 사랑